

# 16세기 개혁파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과 구조: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황대우  
(고신대, 교양학부)

## [초록]

이 글은 16세기에 사용된 용어 '카테키스무스'의 의미와 용례를 살핌으로써 이 용어가 '문답'으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16세기 개혁교회 카테키스무스가 루터교회의 카테키스무스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제네바 카테키스무스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것인지 고찰한다. '카테키스무스'라는 용어는 한글로 번역할 때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으로 흔히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글은 그 용어 속에 이와 같은 문답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스티투티오'(Institutio)와 동의어다. 그러므로 '카테키스무스'는 신앙교육[서] 혹은 교리교육[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16세기 루터파 신앙교육서가 '율법' 즉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모두 '신앙고백' 즉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후 개혁

논문투고일 2015.12.2 / 수정투고일 2015.12.31. / 게재확정일 2016.1.11.

파 신앙교육서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개혁파 신앙교육서가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하는 개혁파 신학의 특징과 잘 어울린다.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칼빈 한 사람에게 의해 작성된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여러 학자들의 합작품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루터파의 압박이 작성 배경이었으므로 제네바 신앙교육서에 비해 개혁파 신학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이 두 신앙교육서의 사소한 차이점이다.

주제어: 카테키스무스, 기독교강요, 제네바 신앙교육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존 칼빈(1509-1564),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1534-1583)

## I. 서론

본 논문은 16세기에 사용된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피고, 또한 개혁파 카테키스무스가 구조적으로 루터파의 카테키스무스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16세기 대표적인 개혁파 도시인 스위스 제네바와 독일 남부 팔츠의 수도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II.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1537/1538)

개혁교회의 발원지로 알려진 스위스의 호반 도시 제네바는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주도한 종교개혁을 1535년에 수용했고 1536년에는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이 파렐의 강력한 권고로 제네바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 제네바 교회 개혁을 위해 칼빈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개혁의 질서와 방향을 위해 ‘교회법’을 작성했고,<sup>1)</sup> 이것에 따라 ‘신앙교육서’를 작성했으며,<sup>2)</sup> 또한 이 ‘신앙교육서’를 요약한 ‘신앙고백서’를<sup>3)</sup> 작성했다.

1537년의 제네바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sup>4)</sup> “세 번째 조항은 어린이의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의문의 여지없이 그들 [=어린이들]은 교회 앞에서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한다. 이런 목

- 1)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 교회법이 “목사들이 의회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들”(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아마도 파렐과 칼빈은 이 문서 작성을 1536년말경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CO 10/1, 5-14; OS 1, 369-77. 독어 번역과 영어번역은 다음 참조. Calvin-Studienausgabe 1/1, Reformatorische Anfänge 1533-1541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94), 114-29; J. K. S. Reid ed. & tran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48-55.
- 2) 1537년 불어판은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교육과 고백”(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de Geneve)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CO 22, 33-74; OS 1, 378-417; Calvin-Studienausgabe 1/1, 138-207. 이것은 1538년 바젤에서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 혹은 기독교 강요”(Catechismus seu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ecclesiae Genevensis)라는 제목의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칼빈이 직접 번역했고 본문 앞에는 긴 서문이 첨가되었다. CO 5, 313-54. 영어 역본은 다음 참조. Paul T. Fuhrmann, tr., *Instruction in Faith*(1537)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38. 폴 푸르만은 불어에서 번역했고, 헤스링크 책 속에 실려 있는 영어 번역은 1538년의 라틴어판에서 서문과 본문 모두를 번역한 베틀즈(Ford Lewis Battles)의 것이다. 불어판의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최도형 역, 『신앙입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서울: 도서출판 경진, 1995), 23-97. 1537년 불어판과 1538년 라틴어판 대조본은 다음 참조. COR III/2, 2-113.
- 3)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신앙고백서는 “제네바의 시민과 거주민, 그리고 이 지역에 예속된 자들이 모두 지키고 보존할 것을 맹세해야 하는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은] 언급한 영역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서]로부터 추출된 것임.” (Confession de la foy laquelle tous bourgeois et habitans de Geneve et subiects du pays doibvent iurer de garder et tenir extraicte de l'instruction dont on use en leglise de la dicte ville)라는 긴 제목으로 1537년에 출간되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제네바 도시의 관할 구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고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되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칼빈은 파렐과 더불어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CO 22, 77-96; OS 1, 418-26; Calvin-Studienausgabe 1/1, 208-223. 라틴어 번역은 다음 참조. CO 5, 355-62. 영어 번역은 다음 참조. J. K. S. Reid ed. & tran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6-33. 영어 번역자는 이 신앙고백서를 1536년의 것으로 소개한다.
- 4) 1537년의 제네바 교회법은 모두 필수적인 4개의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찬과 치리의 필요성, 시편찬송의 필요성,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 결혼 규례의 필요성 등이다.

적으로 고대에는 그들[=어린이들] 각자를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일종의 신앙교육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각자 자신의 기독교를 선언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종의 증거 형식과 같은 것이요, 어린이들은 개인적으로 그 신앙교육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러 오도록 했던 것이다...”<sup>5)</sup> 칼빈이 생각하기에 교육은 제네바 교회의 개혁과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1537년 봄 제네바에서는 신앙의 교육과 고백이 불어판으로 출간되었고, 1년 뒤인 1538년 3월에는 칼빈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바젤에서 출간되었는데,<sup>6)</sup> 이것이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이다. 이 신앙교육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1536년에 출판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지나치게 충실했기 때문에 그 책의 요약본으로 간주된다. 『기독교 강요』 초판의 구조는 ‘율법(십계명 해설)-신앙(사도신경 해설)-기도(주기도문 해설)-성례(세례와 성찬 해설 및 나머지 로마교 5가지 거짓 성례 비판)-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능과 정치조직’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다.<sup>7)</sup>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구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율법(십계명 해설)-신앙

- 5) CO 10/1, 12(=OS 1, 375): “Le 3e article est de l'instruction des enfans, lesqueulx sans doute doibuent a leglise vne confession de leur foy. Pour ceste cause anciennement on auoyt certain catechisme pour jnstituer vng chascun aux fondemens de la religion crestienne, et qui estoit comme vng formulayre de tesmoignage dont vng chacun usoit pour declairer sa crestiente, et nommeement les enfans estoient enseignez de ce catechisme pour venir testifier a leglise leur foy...”
- 6) Frans H. Breukelman,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 Rinse H. Reeling Brouwer and trans. by Martin Kessler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69.
- 7) 『기독교 강요』 초판 원본은 다음 참조. CO 1, 1-248; OS 1, 19-280. 이 초판의 영어, 독어, 네덜란드어, 한글 번역은 각각 다음 참조. Ford Lewis Battles, tr.,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Bernhard Spiess, tr., *Johannes Calvin Christliche Glaubenslehre nach der ältesten Ausgabe vom Jahre 1536* (Zürich: Theologische Buchhandlung, 1985); W. van 't Spijker, tr., *Institutie 1536. Onderwijs in de christelijke religie* (Kampen: Uitgeverij de Groot Goudriaan, 1992);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sup>1</sup>, 1993<sup>10</sup>).

(사도신경 해설)-기도(주기도문 해설)-성례(세례와 성찬 해설)-인간의 전통들과 출교와 정부라는 순서로 되어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제목 ‘인스티투티오’(institutio)를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와 동의어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제목 ‘앵스트뤽씨웅’(instruction) 역시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와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두 저술 모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작성된 ‘신앙교육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sup>8)</sup> 또한 둘 다 ‘율법(십계명)-신앙(사도신경)-기도(주기도문)-성례(세례와 성찬)’라는 구조로 되어있다.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 강요』 초판이 모든 신자를 위한, 특히 성인을 위한 신앙교육서인 반면에,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인 “신앙의 교육과 고백”은 제네바 교회법이 의도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목적으로 작성된 신앙교육서, 즉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서라는 것이다.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기독교 강요』 초판이 심도 있게 다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작성 목적,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앙교육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sup>9)</sup>

8)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불어판과 라틴어판을 비교해보면 instruction이 두 라틴어, 즉 헬라이어에서 음역된 라틴어 catechismus와 고유한 라틴어 institutio로 번역되었다는 사실과 라틴어 institutio가 흔히 알려진 단어 ‘강요’(綱要, 의미: 강령이 될 만한 요점, 즉 골자라는 의미보다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기독교 강요』 초판의 라틴어 제목을 고려할 때 칼빈의 주저는 ‘기독교 강요’로 번역되기 보다는 ‘기독교 신앙교육’ 내지는 ‘기독교 교리교육’으로 번역되는 것이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칼빈의 의도에도 더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칼빈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확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비트거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칼빈이 사용한 이 단어들을 용례와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참조: Paul C. Böttger, *Calvins Institutio als Erbauungsbuch: Versuch einer literarischen Analyse* (Neukirchen: Neukirchner, 1990), 18-19.

9)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달리 1537년의 제네바 신앙교육서에만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마티아스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헤르만 쉘터하위스 편집, 『칼빈헨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415-16.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37년의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모두 배열순서상 일반적으로 1529년 루터의 소신앙교육서와 대신앙교육서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평가된다. 루터의 소신앙교육서는 어린이 교육용으로써 한 가정의家長이 가족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간단한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반면에, 대신앙교육서는 그 대상이 형식적으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문답형식이 아닌 설교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sup>10)</sup>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비록 어린이 교육을 위해 작성된 것이지만 루터의 소신앙교육서와는 달리 묻고 대답하는 문답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앙교육서와 같이 서술적인 설교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문답형식의 신앙교육은 이미 중세 시대에도 존재했다. 예컨대 영국의 위클리프(Wyclif)와 보헤미아의 후스(Huss) 역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답식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는데, 특히 그들 이후 보헤미야 형제단은 그 세 가지 주 내용에다가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답도 첨가했고 마지막에 성경구절로 구성된 의무표도 추가했다.<sup>11)</sup> 이러한 중세 신앙교육의 4대 요소, 즉 기도, 신앙, 율법, 성례는 루터의 대·소신앙교육의 주요 구성요소와 공통적이다.

10) 소신앙교육서는 문답형식의 십계명-사도신경-주기도문-성례(세례와 고해성사와 성찬)의 순서 뒤에 서술형식의 기도(아침과 저녁 기도 및 식사 전과 식사 후 기도)-의무표가 뒤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신앙교육서의 구조는 크게 5부로 나누어서 설교형식으로 십계명-사도신경-주기도문-세례-성찬의 주제를 각각 순서대로 다룬 다음 마치 부록처럼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다룬다. 참조: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herausgegeben im Gedenkjahr der Augsburgerischen Konfession 193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2), 499-733. 이 책에는 독일어와 라틴어 번역이 대조되어 있다.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지원용 편역, 『신앙고백서: 루터교 신앙고백집』(서울: 컨콜디아사, 1988), 315-461.

11) G.H. Gerberding, *The Lutheran Catechist: A Companion Book to "The Lutheran Pastor"* (Philadelphia: The Lutheran Publication Society, 1910), 74-75.

### III.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1542/1545)<sup>12)</sup>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39년의 개정판 사이에 칼빈 신학의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아마도 1538년 칼빈과 파렐이 추방된 이후 제네바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그 해 11월에 새로운 불어판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인 1542년에 출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로 알려진,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 즉 어린이에게 기독교를 교육하기 위한 양식: 대화 형식, 즉 목회자가 묻고 어린이가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됨”(Lecatechisme de l'église de Genève: c'est a dire le formulaire d'instruire les enfans en la Christienté: fait en maniere de dialogue, ou le ministre interroge et l'enfant respond)이다.<sup>13)</sup>

이것은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달리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구조도 달랐다. 『기독교 강요』 초판과 제 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루터의 1529년 신앙교육서의 형식인 ‘율법(십계명)-신앙(사도신경)-기도(주기도문)-성례(세례와 성찬)’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순서로 선택했는데, 즉 ‘신앙(사도신경)-율법(십계명)-기도(주기도문)-성례(세례와 성찬)’의 순서로 되어 있다.<sup>14)</sup> 이런 배열 구조는 1539년의 『기독교 강요』 개정판의 구조

12) 이 부분은 필자의 다음 연구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 1-15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 비교 연구”, 『개혁논총』 제29권 (2014): 249-53.

13) CO 6, 9-134. CO(칼빈작품전집)는 질문의 문항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불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을 대조 편집하여 제공한다. 다른 권위 있는 불어판과 라틴어판은 다음 참조. OS 2, 72-144; E.F. Karl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03), 117-53; Wilhelm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3-41; OS(칼빈작품전집)와 칼 물러 편집판에는 라틴어판만 제공되는데, OS는 질문을 숫자로 표기한 반면에 물러는 표기하지 않았다. 빌헬름 니젤은 문항수가 표기된 불어판만을 참고 있다. 다른 번역서 소개는 다음 참조.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250.n.9.

14)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250-51.

와도 다르다. 1539년 『기독교 강요』 개정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증보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율법(십계명 해설)-신앙(사도신경 해설)-기도(주기도문 해설)-성례(세례와 성찬의 해설 및 나머지 로마교 거짓 성례에 대한 비판)’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서 초판과 대동소이하다.<sup>15)</sup>

그렇다면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구조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그 구조는 칼빈 자신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마르틴 부처(Martin Bucer)가 1534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하여 출간한 신앙교육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록된 간단한 해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통 조항들[=사도신경]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아버지[=주기도문]에 대한.”(Kurtze schriftliche erklärung für die kinder vnd an-gohnden. Der gemeinen artickeln vnsers christlichen glaubens. Der zehen gebott. Des Vatter unsers.)의 배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sup>16)</sup>

두 신앙교육서의 구조적 차이가 있다면 1542년의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성례 즉 세례(유아세례 포함)와 성찬을 주기도문 뒤 말미에서 다루는 반면에, 1534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는 성례(세례와 성찬)와 치리에 대한 문답을 사도신경 문답과 십계명 문답 사이에 둔다는 정도이다.<sup>17)</sup> 이런 배열순서는 ‘사도신경-성례-주기도문-십계명’의 구조된 1537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 즉 “기독교 신앙의 12조항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신앙교육 및 해설. 스트라스부르의 학생과 다른 어린이

15) 1539년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의 1541년 불어 번역과 이것의 영어 번역은 다음 참고. Jacques Pannier, ed., *Oeuvres complètes de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1-4*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61); Elsie Anne McKeel, tr.,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41 French Edi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CO 1, 253-1152에는 『기독교 강요』 1539년 라틴어판부터 1554년까지의 증보판이 함께 제시된다.

16) Robert Stupperich,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6/3. Martin Bucers Katechismen aus den Jahren 1534, 1537, 154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7), 51-173. 이 책은 이후 MBDS로 표기함.

17) MBDS 6/3, 72-95.



를 위하여”(Der kürztzer Catechismus vnd erklärang XII stücken Christlichs glaubens. für die Schüler vnd andere kinder zu Strasburg)<sup>18)</sup>와도 차이가 난다.

1537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의 배열순서는 1545년의 라틴어판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에 마치 부록처럼 첨부되어 있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리 교육서』(*Institution puerile de ladoctrine chrestienne faite par maniere de dyalogue*)라는 간단한 신앙교육서의 형식과 유사한데, 이것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1부에서는 사도신경을, 2부에서는 주기도문을, 3부에서는 십계명을 매우 간단하게 다룬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sup>19)</sup>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답은 생략했다.<sup>20)</sup>

그런데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1534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의 배열순서가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루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는 중세시대 보헤미아 형제단과 왈도파의 신앙교육서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의 배열순서로 된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가르쳤다.<sup>21)</sup>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용되었는데, 1561년 교회법에 따르면 제네바 교회법에 따라 제네바에서는 신앙교육을 배우기 위해 약 10-15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매주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모인 것으로 보인다.”<sup>22)</sup>

18) MBDS 6/3, 175-223.

19) OS 2, 152-57.

20)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252.

21) 참고. M. B. van't Veer, *Catechese en catechetische stof bij Calvijn* (Kampen: J. H. Kok, 1942), 226-27.

22)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252. 참고. Wilhelm Niesel, ed., *Beka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1: Willem van't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J162-J163; 마티아스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417.

#### IV.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 1. 선제후령 팔츠와 팔츠의 수도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

팔츠(Pfaltz)는 독일 남부의 선제후국이다. 16세기 초기부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기까지 이 지역을 다스린 선제후는 모두 넷이다. 1508-1544년에 재위한 선제후는 루트비히 5세(Ludwig V)였는데, 그는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박해하지도 않았다.<sup>23)</sup> 비록 그가 공식적으로는 로마가톨릭교도였지만 1520년 중반에 이미 성직자의 결혼과 성찬식의 이중배찬을 허용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대했다.<sup>24)</sup> 이런 이유로 팔츠 지역에서 개신교 세력은 그의 통치 기간 말년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동생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가 1544년 팔츠의 선제후 자리에 올랐는데, 1556년까지의 재위기간 동안 개신교를 위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개신교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2세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새로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520년대 초에는 마르틴 부셔(Martin Bucer)를 자신의 궁정 설교자로 초빙하기도 했고, 1541년에는 로마교 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 사이의 교회 연합모임인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의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1546년에는 드디어 팔츠 지역의 귀족회의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하여 종교개혁적 성향의 교회법을 제정하고 한 해 뒤에 출판함으로써 팔츠 지역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개신교 연합이 슈말칼덴 전쟁에서 패배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1548년 가신조협정(Interim)의 조항들

23) Lyle D.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24.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신지철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37-38.

24) Bierma,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31.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54.

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1555년에 체결된 아우스부르크 평화조약에 따라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에 기초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sup>25)</sup>

프리드리히 2세의 팔츠 선제후 자리를 물려받은 통치자는 루터교도임을 자처한 오토하인리히(Ottoheinrich)였는데, 그는 1556-1559년 사이의 짧은 통치기간 동안 팔츠가 루터파 지역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프리드리히가 시작한 교회법 개정 작업을 1556년에 완수하여 법령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개정된 교회법은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의 루터파 종교개혁자 요하네스 브렌츠(Johannes Brenz)작성한 뷔르템베르크 교회법을 따랐다. 뿐만 아니라 팔츠의 신앙교육서(Catechismus) 즉 교리문답도 역시 브렌츠가 작성한 뷔르템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그대로 사용했다. 오토하인리히는 1556년에 교회시찰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시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의 루터파 지도자 요하네스 마르바흐(Johannes Marbach)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다음, 팔츠 지역 교회들의 실정을 파악하여 교회 개혁안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루터파 신앙을 결정적으로 확립했다. 또한 그는 1558년에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hthon)의 자문을 받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모든 교과 과정을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혁하고 신학부를 제외한 의학부와 법학부에 유능한 인재들을 초빙하는데 성공했다.<sup>26)</sup>

팔츠 선제후령 후계는 오토하인리히를 마지막으로 팔츠의 비텔스바흐 가문에서 팔츠-짐머른(Pfaltz-Simmern) 가문 출신의 경건자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에게로 넘어갔다. 1559년에 팔츠의 선제후가 된 프리드리히 3세는 당시 심각한 문제였던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성찬론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논쟁의 핵심 인물이었던 두 사람, 그네시오(Gnesio)

25) 프리드리히 2세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는 다음 참조. Lyle D.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25-31.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41-53.

26) 오토하인리히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는 다음 참조. Lyle D.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33-37.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59-67.

루터파의 주장 헤슈시우스(Heshusius)와 개혁파 성찬론을 옹호한 클레비츠(Klebitz)를 모두 해임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성찬 논쟁은 마무리 되지 않았고 1년 뒤 1560년 6월에 공식적인 신학 토론으로 재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성찬 논쟁이다. 루터파 대표 요하네스 슈퇴셀(Johannes Stoessel)과 개혁파 대표 피에르 보퀀(Pierre Boquin) 사이의 논쟁이었는데, 보퀀을 돕기 위해 츠빙글리파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가 나서는 바람에 개혁파의 성찬론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로 인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파 성찬론 보다는 개혁파 성찬론을 좀 더 확고히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sup>27)</sup>

## 2.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과 작성자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1562년이 시작되자마자 뷔르템베르크의 신앙교육서를 대신할 새로운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팔츠를 루터파에서 개혁파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sup>28)</sup>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탄생 후 1563년 1월 19일 화요일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sup>29)</sup>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초판의 짧은 서문이 밝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은 “또한 우리 역시 결

27) 하이델베르크에서 발생한 성찬 논쟁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는 다음 참조.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37-42.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67-79.

28)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49.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91.

29) J.N. Bakhuizen van den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6), 151: “Datum Heydelberg auff Dinstag den neuntzehenden Monatstag Januarij, Nach Christi vnsers lieben Herrn vnd Seligmachers geburt, im Jar, Tausendt, Fünffhundert, drey vnd sechtzig.” = A.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Leo Jud's u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4.

코 사소한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서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제후국의 학교도에서도 교회들에서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 너무 나태하게, 부분적으로는 전혀,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다르게, 또한 어떤 항구적이고도 확실하며 통일된 신앙교육서 없이, 각자 선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계획 되고 교육 된다는 것이다.”<sup>30)</sup>

그러므로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통치 지역 내의 모든 교회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거룩한 복음의 순수하고 통일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서 교육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설교자와 학교교사”(die Prediger und Schulmeister)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항구적인 형식과 수단”(ein gewisse vnd beständige form vnd maß [=masz])인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기를 소원했던 것이다.<sup>31)</sup>

초판 서문에 의하면 프리드리히의 명령으로 새로운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기 위해 목회자와 신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신학부 전체와 모든 총감독들과 뛰어난 교회 사역자들의 회의와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요약적 교육 [서] 혹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교육[서]를, 독일어와 라틴어로 작성하여 출판하도록 한다.”<sup>32)</sup> 여기서 신앙교육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은 신학부의 모든 교수들과 모든 총감독들과 유능한 교회사역자들로 된 세 그룹인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하이

30) Bakhuizen van den Brink,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50: “Also wir auch in dem nit den geringsten mangel befunden, daß die blüenden jugend allenthalben, beides in Schulen vnd Kirchen Vnsers Churfürstenthumbs in Christlicher Lere sehr fahrlessig, vnd zum theil gar nicht, zum theil aber vngleich, vnd zu keinem beständigen, gewissen vnd einhelligen Catechismo: sondern nach eines jeden fürnemen vnd gutdüncken angehalten vnd vnderwiesen worden.” = A.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3.

31) Bakhuizen van den Brink,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51. =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3.

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공동작품이었다고 조심스럽게 결론 내릴 수 있다.<sup>33)</sup>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최종 본문의 편집자는 누구인가? 17세기 독일의 개혁교회 신학자 하인리히 알팅(Heinrich Alting)이 팔츠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는 “그 수고는 1562년도에 두 신학자, 올레비아누스와 박사 우르시누스에게 주어졌는데, [둘은] 독일인일 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저술하는데 숙달된 사람들이다.”<sup>34)</sup>라고 언급한 이후 이 두 개혁자가 최종 편집자로 알려졌다. 19세기 초에 네덜란드 교회사가 아나에우스 에이페이(Annaeus [=Anne] Ypey)와 이삭 요하네스 데르마우트(Isaac Johannes Dermout)가 올레비아누스를 배제하고 우르시우스만을 최종 작

32) Bakhuizen van den Brink,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50: “Und demnach mit rhat vnd[=vnn] zuthun Vnserer gantzen Theologischen Facultet allhie, auch allen Superintendenten vnd fürnemen Kirchendienern einen Summarischen vnderricht oder Catechismus vnserer Christlichen Religion auß[=ausz] dem Wort Gottes, beides in Deutscher vnd[=vnn] Lateinischer Sprach verfassen vnd stellen lassen.” 인용구에서 [ ] 안에 표기된 철자는 랑이 제시하는 본문으로, 16세기 남부 독일에서는 ‘vnd’가 ‘vnn’으로 표기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A.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3

33) Bierma,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53-57.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00-109. 여기서 비르마는 세 그룹의 인문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그룹인 신학부 교수들에는 교의학 담당 교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구약 담당 교수 임마누엘 트레멜리우스(Immanuel Tremmelius)와 신약 담당 교수 페트루스 보퀴누스(Petrus Boquinus = Pierre Boquin, 뵘에르 보갱)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인 총감독들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는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요아네스 벨바누스(Joannes Velvanus), 요하네스 빌링(Johannes Willing), 요하네스 실바누스(Johannes Sylvanus), 요하네스 아이젠멩거(Johannes Eisenmenger) 등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교회의 주요 사역자들에는 올레비아누스, 아담 노이저(Adam Neuser), 페트루스 마허로포에우스(Petrus Macheropoeus), 틸레만 무미우스(Tilemann Mumius), 요하네스 브루너(Johannes Brunner), 궁정 설교자 미카엘 딜러(Michael Diller), 지혜대학의 교수 콘라트 마리우스(Konrad Marius) 등과 교회[치리]회(Kirchenrat, 3명의 목사와 3명의 평신도 대표)의 구성원 6명 가운데 세 명의 평신도 역시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들은 회장이자 선제후의 정치고문 벤첼라우스 출레거(Wenzelau Zuleger)와 서기이자 선제후의 개인 비서 스테파누스 치를러(Stephanus Cirler)와 의사 신학자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였다. 이 명단 외에도 비르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작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제시하는데, 페트루스 다테누스(Petrus Dathenus)와 크리스토프 에헴(Christoph Ehem)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그들이다. 특히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성자로 주장하였으나,<sup>35)</sup> 이후 19세기 중반에 독일 신학자 주트호프(Sudhoff)와 19세기 후반에 네덜란드 신학자 호우즌(Gooszen)은 여전히 알팅의 견해를 지지했다.<sup>36)</sup> 20세기에 발터 홀벡(Walter Hollweg)이 독일어 원문의 최종 편집자는 단 한 명이였겠지만, 그가 올레비아누스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sup>37)</sup> 홀벡 이후 현대 학자들 사이에는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작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그가 최종 편집자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다.<sup>38)</sup>

최종 편집자에 관하여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연구의 대가 비르마는 홀벡이 올레비아누스를 작성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위원회에서 올레비아누스의 역할이 사소한 것 이상이었을 것이라 확신한다.<sup>39)</sup>

34) Heinrich Altung, "Historia ecclesiae Palatinae" in *Monumenta pietatis et litteraria virorum in re publica et litteraria illustrium selecta* (Frankfurt, 1701), 189: "Id negotium datum duobus Theologis, Oleviano et dr. Ursino, 1562, tamquam Germanis et Gernamice scribere doctis." 이것은 M.A. Gooszen, *De Heidelbergisch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Leiden: E.J. Brill, 1890), 1, n.1.에서 재인용. 알팅은 자신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해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최초의 작성자들인 우르시누스 박사와 올레비아누스는 서로의 의견과 업무를 수렴하여 신앙교육서 [내용]을 완성한 후에, 승인되어야 할 것[신앙교육 내용]을 팔츠 교회의 감독들에게 제출했다." (Scriptores imprimis Dr. Ursinus et Olevianus, qui, cum collatis inter se consiliis et operis confecissent Catechesin, censendam eam dederunt Inspectoribus Ecclesiarum Palatinarum.)라고 주장한다. 라틴어 본문은 Karl Sudhoff, *C. Olevianum und Z. Ursinus.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Verlag von R.L. Friderichs, 1857), 108, n.\*에서 재인용.

35) A. Ypeij & I.J. Dermout, *Geschiedenis der Nederlandsche Hervormde Kerk I* (Breda: W. van Bergen, 1819), 457.

36) Karl Sudhoff, *C. Olevianum und Z. Ursinus*, 88-124; M.A. Gooszen, *De Heidelbergische Catechismus*, 1-132.

37) Walter Hollweg, *Neue Untersuchungen zu Geschichte und 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124-152.

38)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71.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40-141.

39)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67.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31.

그리고 최종 편집자가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홀벡의 추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장하기를 올레비아누스가 비록 신앙교육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최종 편집자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데 반해, 최종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법한 정황 증거가 우르시누스에게 우세하다는 것이다.<sup>40)</sup>

비르마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공동 작업의 결과로 탄생하긴 했지만 최종 편집자는 우르시누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비르마는 우르시누스의 소신앙교육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초고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신한다.<sup>41)</sup> "정황 증거의 우세"가 우르시누스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비르마는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두 개의 신앙교육서, 즉 먼저 작성된 소신앙교육서와 후에 작성된 대신앙교육서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두 신앙교육서는 모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129가지 질의응답 가운데 약 90개 정도가 소신앙교육서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고 대신앙교육서 역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일부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sup>42)</sup>

우르시누스의 소신앙교육서가 1562년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1612년에 우르시누스의 작품 전집을 편집 출판한 로이터(Reuter)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소신앙교육서. 기독교 신앙을 간단명료하게[명료한 간결성으로] 포괄함. 1562년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의해 작성됨. 저자의 서재로부터 자필 원본에 의해 드디어 처음으로 출판됨."<sup>43)</sup> 비르마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문제는 이 신앙교육서의 저자가 우르시누스라는 결정적

40)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74: "Little evidence exists to suggest that this person was Olevianus, although his role on the committee was probably not as minimal as many today would have us believe. The preponderance of circumstantial evidence points toward on person in that role - Zacharias Ursinus."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47.

41)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61.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18-119.

42)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72.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42-143.



증거, 혹은 최소한 그가 홀로 작성한 것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비르마가 인용한 것처럼 노이저(Neuser)의 주장대로 이 소신양교육서가 우르시누스 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닌, “공동 작업의 결과”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르마는 알팅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로이터의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 없이 수용한다. “그러므로 당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결코 최하급이 아닌 우르시누스 박사는 최고 통치자의 명령으로 신앙교육을 책자로 만들었고 제공해야 했는데, 분명히 하나는 학구적인 성인들과 대학들을 위한 대[신양교육서]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이해력과 소년 연령대에 오히려 적용되는 소[신양교육서]이다. 둘 다 승인되었는데, 그것은 천상적 진리의 요약 혹은 순전한 신학의 계획을 포괄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 공적인 신앙교육[서]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결국 1563년 1월에 출판되었다.”<sup>44)</sup>

로이터의 주장을 근거로 비르마는 대신양교육서의 작성 연대를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한 1561년 9월에서 그의 소신양교육서가 작성된 156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sup>45)</sup> 로이터의 말이 액면대로 사실이라면 “공적 신앙교육서”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저자는 최종 혹은 대표 저자는 아마도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로이

43) Quirinus Reuterus, (ed.), *D. Zachariae Ursino theologi celeberrimi... Opera theologica I* (Heidelberg: Johannis Lacellotus, 1612), 34-35: “Catechesis minor perspicua brevitate christianam fidem complectens. Scripta Anno M D L X I I. A D. Zacharia Vrsino.”

44) Quirinus Reuterus, (ed.), *D. Zachariae Ursino theologi celeberrimi... Opera theologica I*, 10-11: “Itaque D. Ursinus, haud postremus inter ejus temporis theologos, Magistratus summi jussu, Catechesin, unam quidem majorem, pro studiosis adultioribus, & scholis majoribus: alteram minorem, captui populi & puerilis aetatis magis accommodatam, in chartam conjecit, & quibus oportuit exhibuit. Utraque probata, quod summam veritatis coelestis, sive sinceræ Theologiae phrasi plana complecteretur. Ex hac etiam pleraque transcripta in publicam Catechesin, a Friderico III, Anno MDLXIII. Mense Ianuario, tandem in lucem editam, ...”

터는 소신양교육서가 “백성의 이해력과 소년 연령대”에 적합한 것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은 독일어가 아닌 라틴어로 작성되었고, 독일어 소신양교육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16세기에는 “소”(minor)라는 글자가 신앙교육서와 결합되면 그것은 대체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루터의 소신양교육서가 독일어로, 제네바의 어린이 신앙교육서가 프랑스어로 작성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르시누스의 소신양교육서는 오직 라틴어로만 작성되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로이터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로이터는 자신이 3권으로 편집한, 하이델베르크와 노이슈타트(Neustad) 시절의 우르시누스 “신학작품집”(opera theologica)에서 대신양교육서 본문을 제외시키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가령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최종 편집자가 우르시누스였다고 해도 우르시누스의 것으로 알려진 두 신앙교육서 작성 연대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내용의 유사성만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그의 두 신앙교육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만일 두 신앙교육서가 우르시누스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고, 또한 그가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초안이 그 두 신앙교육서 보다 먼저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두 신앙교육서 작성에 깊은 영

45) Bierma,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137.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288. 에어트만 슈투름(Erdmann Sturm)의 연구를 근거로 비르마는 대신양교육서가 1562년 후반기의 어떤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 참고. Erdmann K. Sturm, *Der junge Zacharias Ursin. Sein Weg vom Philippismus zum Calvinismus(1534-156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2), 238-45. 슈투름은 로이터가 올레비아누스를 하이델베르크 최종작성자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로이터가 우르시누스에 대해 제시하는 내용은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는데, 형평성이 부족해 보인다.

향을 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최종 편집본은 늦어도 1562년 말에는 완성되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초안자와 최종 편집자를 어느 한 사람으로 확정하기에는 아직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비록 우르시누스가 가장 적임자처럼 보이고, 몇몇 간접 증거들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 3.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구조

“비참(Elend)-구원(Erlösung)-감사(Dankbarkeit)”의 3부로 구성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구조도 16세기에 작성된 수많은 다른 신앙교육서들에 비해 독특하지만, “유일한 위로”(einiger trost)로 시작하는 서두는 거의 독보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sup>46)</sup>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배열순서는 독창적인 것이 아닌, ‘사도신경-십계명-성례-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앙(사도신경)-율법(십계명)-기도(주기도문)-성례(세례와 성찬)’로 배열된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유사하고, ‘신앙(사도신경)-성례(세례와 성찬)-기도(주기도문)-율법(십계명)’의 순서로 배열된 1534년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의 배열순서와도 유사하다. 이 세 신앙교육서에서 성례의 배열순서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신앙 즉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다룬다는 점에서 일치하는데, 이것이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일맥상통하고, 루터파와 다른 개혁주의 신앙교육서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46) 구조적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259-62.

## V. 결론

우선, 16세기에 통용된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테키스무스”라는 용어를 신앙교육을 위해 사용했다. 이것은 비단 16세기만 통용된 특별한 용례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보편적 용례다. 따라서 이 용어가 칼빈이 자신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제목으로 사용한 단어, “강요”(Institutio)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에 모든 “카테키스무스”가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도 루터의 카테키스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카테키스무스”를 ‘문답’으로 번역할 경우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의 용례를 감안한 가장 좋은 번역은 “신앙교육[서]” 혹은 “교리교육[서]” 정도가 될 것이다.

16세기 개혁파 신앙교육서는 루터의 대소 신앙교육서 작성 목적을 충실하게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루터파의 신앙교육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은 구조적인 것인데, 16세기 개혁파 신앙교육서는 대체로 사도신경 → 십계명 → 주기도문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 → 사도신경 → 주기도문의 순서로 이루어진 루터와 루터파 신앙교육서의 순서와 다르다. 루터와 루터파 신앙고백서의 순서는 율법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간주하는 루터 신학이 반영된 것인 반면에, 개혁파 신앙교육서 순서는 사도신경 혹은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취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한 율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율법의 제3용법을 강조하기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차이점은 저자와 작성 배경에 있다.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한 사람 칼빈에 의해 작성된 것인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여러 학자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제네바 도시가 파렐이 주도한 종교개혁 즉 개혁파 종교개혁을 수용한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와 다른 종교개혁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앙교육서 작성의 필요성에 따른 결과물이다.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루터파 종교개혁이 수용된 독일 남부의 선제후령 팔츠에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로 즉위한 이후 개혁파 종교개혁을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배경적 차이점 때문에 따라서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개혁파 신학의 특징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내용적으로 루터와 루터파 신앙고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르시누스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든 아니든 이런 배경적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단어 선택과 신학 주제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전체적으로 개혁파 신학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구조, 즉 신앙교육서의 순서다.

#### [Abstract]

### The Background and Structure of the Reformed Catechism in 16th Century: Focused on Geneva's Catechism and Heidelberg's Catechism

Dae Woo Hwang (Kos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see what the term catechism means in 16th century and to research Geneva's Catechism and

Heidelberg's Catechism in order to se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ed catechisms in comparison with the Lutheran catechisms. Calvin used the term catechism for the same meaning not only with the Latin "institutio" in his Institution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ut also with the French "instruction" in the first Catechism of Geneva. In this point we recognize that the catechism means the instruction of faith. The two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namely the second Catechism of Geneva and the Catechism of Heidelberg, have the same structure, Apostolic Creed → Ten Commandments → Lord's Prayer, whereas the Lutheran Catechism has the other structure, Ten Commandments-Apostolic Creed → Lord's Prayer. In the structure of the Reformed Catechism we can lay greater emphasis on the third use of the law, than in that of the Lutheran Catechism.

Key Words: Catechism, Institutio, Geneva Catechism, Heidelberg Catechism, John Calvin(1509-1564), Zacharius Ursinus(1534-1583)



## [참고문헌]

- Bierma, Lyle D.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신지철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Breukelman, Frans. H.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 by Rinse H. Reeling Brouwer and trans. by Martin Kessler.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 Brink, J.N. Bakhuizen van den.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6.
-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5.
- Calvin-Studienausgabe 1/1. Reformatorische Anfänge 1533-1541*.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94.
-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Herausgegeben im Gedenkjahr der Augsburger Konfession 193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2.
-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1537)*, tr. Paul T. Fuhrman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Gerberding, G.H. *The Lutheran Catechist: A Companion Book to "The Lutheran Pastor"*. Philadelphia: The Lutheran Publication Society, 1910.

- Gooszen, M.A.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Leiden: E.J. Brill, 1890.
- Hesselink, I. John.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Hollweg, Walter. *Neue Untersuchungen zu Geschichte und 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 Lang, A.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Leo Jud's u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 Mckee, Elsie Anne. tr.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41 French Edi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 Müller, E.F. Karl.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03.
- Niesel, Wilhelm.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 Pannier, Jacques. (ed.) *Oeuvres complètes de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1-4*.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61.
- Paul C. Böttger, *Calvins Institutio als Erbauungsbuch: Versuch einer literarischen Analyse* (Neukirchen: Neukirchner, 1990)
- Reid, J. K. S. ed. & trans.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Reuterus, Quirinus. (ed.) *D. Zachariae Ursino theologi celeberrimi... Opera theologica* I. Heidelberg: Johannis Lacelotus, 1612.
- Spieß, Bernhard. tr. *Johannes Calvin Christliche Glaubenslehre nach der ältesten Ausgabe vom Jahre 1536*. Zürich: Theologische Buchhandlung, 1985.
- Johannes Calvin, Institutie(1536), *Onderwijs in de christelijke religie*, tr. W. van't Spijker. Kampen: Uitgeverij de Groot Goudriaan, 1992.
- Stupperich, Robert.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6/3. Martin Bucers Katechismen aus den Jahren 1534, 1537, 154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7. = MBDS.
- Sturm, Erdmann K. *Der junge Zacharias Ursin. Sein Weg vom Philippismus zum Calvinismus(1534-1562)*.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2.
- Sudhoff, Karl. C. *Olevianum und Z. Ursinus.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Verlag von R.L. Friderichs, 1857.
- Veer, M. B. van't. *Catechese en catechetische stof bij Calvijn*. Kampen: J. H. Kok, 1942.
- Ypeij A. & Dermout, I.J. *Geschiedenis der Nederlandsche Hervormde Kerk* I. Breda: W. van Bergen, 1819.
- 셀더하위스, 헤르만. (편). 『칼빈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지원용 편역. 『신앙고백서: 루터교 신앙고백집』.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칼빈, 존.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 완역)』. 양낙홍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sup>1</sup>/1993<sup>10</sup>.
- 칼빈, 존. 『갈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진, 1995.
- 칼빈, 존. 『신앙입문』. 최도형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황대우,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제 2 제네바 신앙교육서 1-15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 비교 연구”. 『개혁논총』 제 29권 (2014): 245-75.